

실체체형과 이상체형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인식과 선호체형에 대한 연구

최 미 성[†]

동신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Preferred Body Shape and the Perception between Real and Ideal Body Shapes of College Students

Mee-Sung Choi[†]

Dept. of Costume Design, Dongshin University
(2007. 8.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between real and ideal body shapes of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preferred body shape of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subjects numbered one hundred forty five male and female students, aged 20 to 29, who lived in Gwangju and Chonnam province. The anthropometric data was collected including both direct and indirect measurem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t-tes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p \leq .001$) between real body size and ideal body size. The result showed that male students want to have bigger chest circumference and a taller height than their real body, the research also showed that the female students want to have a narrow bust and hip width along with a taller height than real body. Regarding ideal body shape, male students pursued bigger height and want an inverted-triangle body shape. On the other hand, female students pursued bigger height and slim body shape. This study established the factors(dimension of torso, height, the side shape of torso, and shoulder shape) as the perception between real and ideal body shapes. In terms of real body, the factor analysis shows two contrasting results in which the heigh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female students, while the torso dimens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male students. In terms of ideal body, the height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for both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Key words: Ideal body shape, Inverted-triangle body shape, Slim and tall, Factor analysis; 이상체형, 역삼각형 체형, 가늘고 키가 큰, 요인분석

I. 서 론

최근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웰빙(Well-being)과 함께 외모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전략이 되었으며 자

[†]Corresponding author

E-mail: mc102@dsu.ac.kr

본 논문은 동신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기개발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남성복 패션시장이 증대되고 있고 미용과 뷰티샵 등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로 남성 화장품 시장은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매장이 필수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체는 의복과 함께 외모의 구성 요소로서 작용한다. 외적인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고 내면의 가치를 재

발견하는 자기개발은 체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실제체형을 정확히 인식하여 의복의 디자인과 색상, 소재들을 이용해 체형별 이미지 메이킹 방법을 시도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점검함으로써 결점을 커버하고 매력을 강조하여 이상적인 체형으로 변모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이 물질주의 가치가 높고 영상매체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성형관심, 체중관심, 머리손질 관심, 화장관심이 모두 높았다(전용민, 2003). 청소년들은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여 연예인의 화장을 모방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이명희, 2003). 특히 미적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고 특히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자신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함을 유지하기 보다는 날씬하고 개성 있는 외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여대생들이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허갑범, 1990), 비판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체중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표준체중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저체중인 경우에도 자신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체중과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체중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Moses et al., 1989). 특히 20대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대해 많은 욕구를 갖고 있으며,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고,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중에서 인지체형이 신체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구양숙, 추태귀, 1996)고 하였다. 박재경 외(2004)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실제체형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판단하는 인지체형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갖는 이상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김양진(1992)은 의복행동과도 관련하여 신체에 만족하면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체형에 대한 이미지는 스스로의 주관적, 감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고 체형만족도는 자신의 체형 이미지에 의해 신체 각 부위에 대해 갖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느낌이다(Horn & Gruel, 1981). Desmond et al. (1989)은 흑인여성과 백인여성의 자기체형에 대한 인지를 조사하여 흑인여성이 백인여성에 비해 실제체중보다 더 작게 인지하여 날씬하다고 생각하지만 백인여

성은 실제보다 무겁게 인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과거와 달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패션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호감가는 외모 만들기나 좋은 이미지 만들기과 관련하여 본인의 체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상적 체형에 대한 높은 관심은 '몸짱', '얼짱'이라는 신생용어를 만들어 유행시키고 있다.

성과 함께 신체이미지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성격 등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물로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사회내에서 추구되는 정체성이 있는데 요즘의 추세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 역할 개념이 점차 희박해지고 미를 위한 성형, 다이어트 등 신체와 관련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김재숙 외, 2003).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이나 내외적으로 성숙된 이미지 연출은 매우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인 자기표현 방법을 익히기 위한 체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인의 실제체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기존중감을 높여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유도하지만, 실제체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이미지 구성요소인 체형, 의복의 디자인과 색상, 소재들을 이용해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매력을 개발하여 이상체형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송경자, 김재숙, 2005; 임경복, 1997; 황진숙, 나영주, 1999; Rudd & Lennon, 2001)가 상당히 이루어져왔지만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수량적 치수나 인체부위별 요인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선호체형을 제시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래의 소비자인 남녀 대학생들의 실제체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접 인체계측을 실시하여 객관적 치수 개념하에 그들이 원하는 이상체형과의 형태적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 치수의 수량적 차이점을 비교 및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대학생들이 어떤 신체조건을 선호하는지, 체형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체형 특성에 관한 중요한 설명인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의복제조업체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선호체형에 맞는 미적·기능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소재를 개발할 수 있고, 의복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상체형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데 적합한 의복스타일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남녀 대학생들의 실제체형

치수와 이상체형 치수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신체 직접측정과 디지털 카메라에 의한 간접측정을 병행하고, 자신의 실제체형을 배경으로 하고 그 위에 이상적인 신체형태를 직접 그려서 실루엣을 나타냄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남녀 대학생들의 선호체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상체형을 설명하는 중요인자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29세 사이의 대학생 145명으로, 여자 대학생이 69명, 남자 대학생이 76명이다. 조사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시행되었고, 인체측정은 마틴계측기에 의한 계측치를 실제체형 측정치로 이용하였고, 디지털 사진촬영을 하여 1/10사이즈로 출력하여 본인에게 나눠준 뒤 신체의 외곽선을 따라 실루엣을 그려보도록 하고 별도로 나누어준 용지에 이상체형 치수를 적게 하였다.

2. 인체측정방법 및 항목

인체측정방법과 용어는 한국표준과학연구소(1997)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4)의 방법에 따랐다. 인

체측정방법으로는 마틴계측기에 의한 직접계측과 사진촬영에 의한 간접계측을 하였다. 먼저 각자의 실제체형을 파악시키기 위하여 인체계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인체계측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마틴계측기, 줄자를 사용한 직접계측을 실시하였다. 사진계측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모델의 정면과 측면의 전신상을 촬영하였다. 사진계측 시에는 모델 옆에 50cm 간격을 표시한 보조기둥을 세워놓고 사진계측결과를 신장의 1/10비율로 출력하였다. 이상체형의 치수는 이미 파악된 실제체형의 정면과 측면의 실루엣을 보면서 본인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록하도록 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인체계측과 사진촬영시 체

Table 1. Measuring Items

구분	항목	구분	항목
높이항목	1. 신장	무게항목	12. 겨드랑두께
	2. 목뒤높이		13. 젖가슴두께
	3. 어깨끝점높이		14. 허리두께
	4. 겨드랑높이		15. 엉덩이두께
	5. 옆허리높이		16. 어깨끝점너비
	6. 엉덩이높이		17. 겨드랑너비
길이항목	7. 등길이	너비항목	18. 허리너비
	8. 머리수직길이		19. 엉덩이너비
	9. 젖가슴둘레		20. 머리너비
둘레항목	10. 허리둘레	무게항목	21. 체중
	11. 엉덩이둘레	계산항목	BM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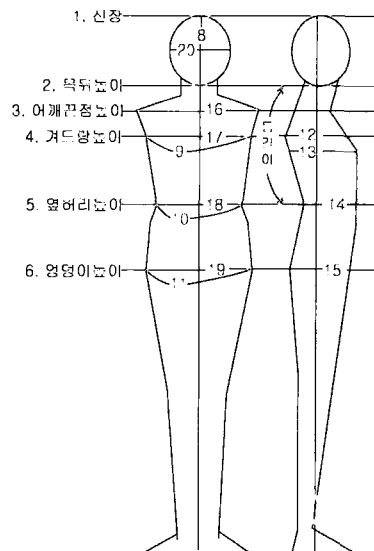


Fig. 1. Identifying method of silhouette and diagram.

형의 윤곽선이 잘 드러나도록 저지소재의 피트한 티셔츠와 런닝셔츠를 착용시킨 후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은 <Table 1>과 같다.

본인의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 도식화 그리는 과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실제 계측했던 계측기록표를 참조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을 1/10 크기로 출력한 사진을 보면서 연필을 사용하여 모눈종이 위에 본인의 앞모습과 옆모습의 실제체형 도식화를 완성하고 그 위에 다른 색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상체형 실루엣을 그리도록 한다. 이는 이상체형에 관한 구체적인 치수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작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인체측정자료와 이상체형 치수에 대한 자료를 기초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 t-test의 유의차 검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체형 이상체형간에 요인 분석을 하여 특정적 요인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이는 SPSS 10.2V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남자 대학생의 신체부위에 따른 실제체형 치수와 이상체형 치수의 비교

남자 대학생들의 실제체형 치수와 이상체형 치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t-test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계측치에 의한 남자 대학생들이 실제체형과 이상체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신장, 목뒤높이, 어깨높이, 겨드랑높이, 옆허리높이, 엉덩이높이와 같은 높이항목은 실제치수와 이상적인 치수간에 유의한 차이($p \leq .001$)

Table 2.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data between real and ideal body shapes of male students (units: cm, kg)

항 목	실제체형		이상체형		T-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 장	174.03	5.85	177.10	5.80	-8.70***
목뒤높이	148.21	5.50	150.21	5.52	-6.43***
어깨높이	141.91	5.41	143.74	5.53	-6.74***
겨드랑높이	127.67	5.14	129.43	5.25	-6.30***
옆허리높이	102.80	4.96	104.82	5.07	-6.01***
엉덩이높이	86.99	4.38	88.17	4.88	-5.73***
등길이	47.79	3.17	49.40	3.64	-2.93***
젖가슴둘레	94.06	6.08	96.44	6.48	-4.96***
허리둘레	81.30	7.02	80.26	5.51	2.09*
엉덩이둘레	97.18	4.78	97.13	4.93	0.09
겨드랑두께	22.74	2.17	22.54	2.67	0.74
젖가슴두께	23.20	2.17	23.96	2.87	-2.68**
허리두께	20.13	1.96	20.04	2.58	-0.31
엉덩이두께	24.41	2.86	23.30	3.26	3.26**
어깨너비	42.30	3.89	44.27	4.51	-5.98***
겨드랑너비	31.04	2.11	31.96	2.36	-3.97***
허리너비	28.27	2.61	28.41	2.36	-0.63
엉덩이너비	33.70	1.74	33.32	1.96	-1.53
머리수직길이	22.37	1.71	21.87	1.87	3.65***
머리너비	16.80	1.74	16.45	1.76	3.95***
체 중	69.76	9.07	70.42	7.31	-0.99
BMI 지수	23.02	2.56	22.45	1.92	2.69*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를 나타내 있어 특히 많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두께와 너비항목에서 어깨너비와 겨드랑이 위치너비는 실제치수와 이상치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엉덩이둘레와 엉덩이너비는 실제치수와 이상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엉덩이부위의 변화를 원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평균 신장이 173.94cm인데 이상적으로 원하는 신장은 3.2cm가 큰 177.1cm였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실제크기와 이상적인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비해, 젖가슴둘레는 실제크기가 94.57cm이고, 이상적으로 원하는 젖가슴둘레는 96.81cm이다. 체중은 실제치수가 69.56kg이며 이상적인 체중은 70.67kg으로 체중은 1kg 정도의 작은 차이가 나지만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마르고 가는 체형보다는 튼튼해 보이는 체형을 선호한다고 판단된다. 신장과 젖가슴둘레가 커지기를 원하고 어깨너비가 넓어지길 원하는 반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적어지는 체형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자 대학생들이 몸통(Torso)의 크기는 커지면서 실루엣에 있어서는 T자형의 역삼각형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여기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재은, 이순원(1993)의 연구결과에서 자신이 인식하는 체형이 실제체형보다

신체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과 종단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전국 국민표준조사 치수와 본 연구의 남학생 평균치 비교 그래프

<Fig. 2>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전국 국민표준치수와 본 연구의 평균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을 전국 체측치수와 비교해볼 때 20-24세의 신장은 51%, 25-29세의 신장은 61%에 위치하고 있다. 체중은 20-24세 일 때 체중은 51%, 25-29세의 49%에 위치하고 있다. 비만도(BMI, Body Mass Index)지수가 18.5 미만일 때 저체중이며, 18.5-22.9일 때 정상이고, 23-24.9일 때는 과체중, 25-30 미만은 중도비만을, 30이상 일 때는 고도비만으로 판정이 된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남자 대학생들은 비만도는 22-24 사이에 있으므로 정상상태에 속한다.

3. 여자 대학생의 신체 실제체형 치수와 이상체형 치수의 평균비교

여자 대학생들의 체형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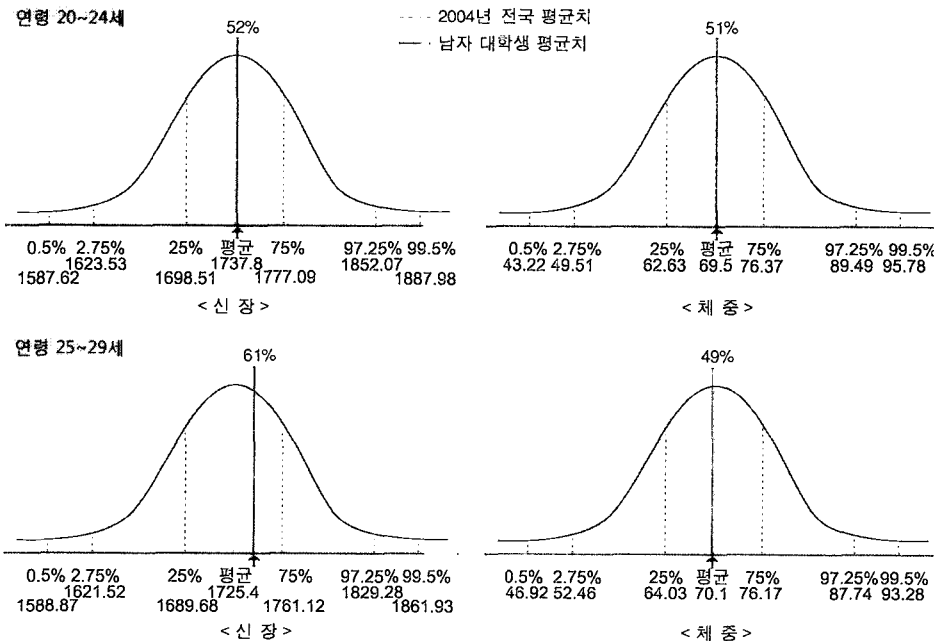


Fig. 2. Stature and weight between 2004 Korea and real mean of male students.

기 위하여 인체 실제치수와 이상치수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여자 대학생들은 본인의 체형에서 변화되길 원하는 경우가 부위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응답자가 특히 많이 변화되길 원하는 부위는 여학생의 경우에 신장, 목뒤높이, 어깨높이, 겨드랑높이, 옆허리높이, 엉덩이높이와 같은 높이 항목에서는 남학생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실제 평균 신장은 161.93cm이며,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신장은 164.23cm으로 2.3cm가 더 커지길 원하였다. 반면 허리둘레는 68.57cm에서 66.02cm로 2.55cm 줄어들기를 원하며 엉덩이둘레는 93.73cm에서 90.49cm로, 엉덩이두께는 22.43cm에서 21.86cm로 더 적어지길 원하였다. 실제 젖가슴둘레는 85.11cm인데 이상치수는 86.01cm이며, 실제 젖가슴두께는 22.39cm인데 이상 치수는 22.73cm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학생들이 동체가 트고 엉덩이 부위가 적어지길 원하는 것과 달리 여학생들은 젖가슴둘레도 커지지 않고 엉덩이둘레는 오히

려 줄어지기를 바라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재은, 남윤자(1999)의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에서 1997년도 기준으로 여자 대학생의 신장이 실제치수 159.93cm에서 166.46cm로 커지길 원하며, 몸무게는 51.89kg에서 49.16kg로 가볍게 되기를 원하는 연구자료와 일치한 결과이다. 즉 전체적인 실루엣은 슬림하고 높이는 높아져 신장이 커지면서 둘레, 두께 및 너비는 현재의 상태보다 더 좁아 보이는 체형을 원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디자인과 소재의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4. 전국 국민표준조사 치수와 본 연구의 여학생 평균치 비교 그래프

<Fig. 3>은 국민표준체위조사 치수와 본 연구의 여학생 평균치 비교 그래프이다.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실제체형 치수와 이상체형 치수에

Table 3.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data between real and ideal body shape of female students (units: cm, kg)

항 목	실제 계측치수		이상치수		T-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 장	161.93	4.23	164.23	4.03	-7.11***
목뒤높이	137.42	4.08	139.42	4.10	-5.29***
어깨높이	132.21	4.08	133.65	4.30	-3.44***
젖가슴높이	119.57	4.21	121.25	4.36	-5.03***
옆허리높이	100.00	3.93	102.45	5.19	-4.32***
엉덩이높이	80.65	3.53	82.63	4.06	-6.11***
등길이	40.06	2.18	40.41	2.71	-1.47
젖가슴둘레	85.11	5.00	86.01	4.10	-1.99*
허리둘레	68.57	4.97	66.02	4.98	0.87***
엉덩이둘레	93.73	4.67	90.49	6.21	4.03***
겨드랑두께	20.24	2.34	18.90	3.00	-0.20***
젖가슴두께	22.39	2.01	22.73	2.86	-0.90
허리두께	17.88	2.11	17.06	2.66	4.13***
엉덩이두께	22.43	2.15	21.86	3.52	1.51
어깨너비	36.88	1.58	35.80	2.23	5.21***
젖가슴너비	28.08	3.09	26.82	2.84	4.96***
허리너비	24.51	1.89	23.28	1.81	6.84***
엉덩이너비	33.09	2.05	31.90	2.42	5.05***
머리수직길이	21.82	2.31	20.91	1.74	4.36***
머리너비	15.85	0.76	15.31	0.97	5.86***
체 중	52.75	5.62	49.82	4.48	6.72***
BMI 지수	20.12	1.96	18.46	1.59	7.80***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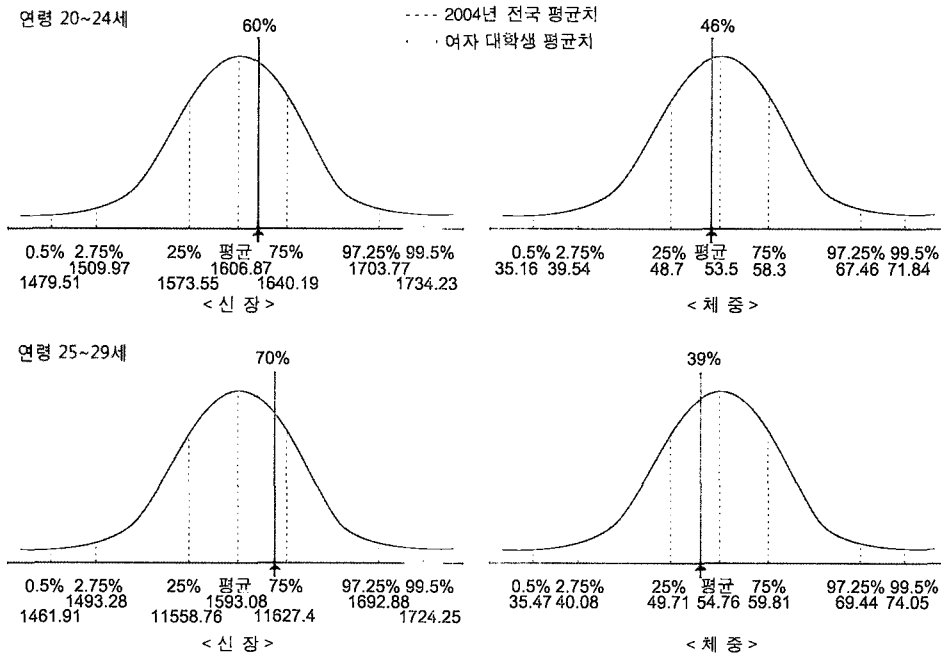


Fig. 3. Stature and weight between the size Korea and real mean of female students.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훨씬 더 많았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허리너비와 엉덩이 너비항목에서 실제치수와 이상치수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수준($p < .001$)으로 이상치가 훨씬 적어지기를 원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을 전국 계측치수와 비교해볼 때 20-24세의 신장은 60%, 25-29세의 신장은 70%에 위치하고 있다. 체중은 20-24세 일 때 체중은 46%, 25-29세의 39%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able et al.(1986)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 정도는 1% 미만이나 여성의 경우,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 정도가 15% 정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5.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의 실루엣 비교

<Fig. 4>는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들의 실제치수와 이상치수 평균치에 의한 정면체형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점선은 실제체형을, 실선은 이상체형을 나타낸 것이다. 남자 대학생의 선호체형은 신장과 어깨부위가 옆으로 크고 넓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반면, 여자 대학생은 신장이 커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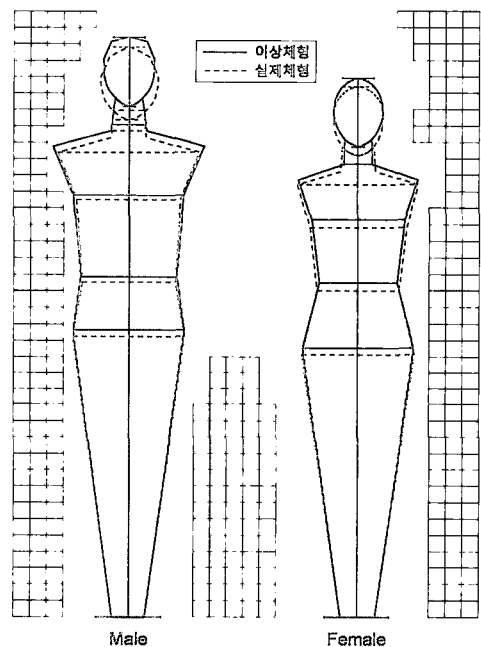


Fig. 4. Silhouette of the male and the female students by mean size.

원하지만, 어깨가 좁아지면서 솟아오른 형태를 원하며, 등길이는 짧아져 상체가 짧아지고 엉덩이 너비

및 들레는 좁아지길 위하여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슬림한 체형을 선호하였다.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본인의 어깨 형태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겨드랑높이, 허리높이, 엉덩이높이는 많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어 동체가 짧고 좁아 보이면 시각적으로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도 국민표준체위조사 측정치와 본 연구대상자의 실제치수와 이상치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제시된 Size Korea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대부분의 항목에서 본 연구대상자의 실제치수와 이상치수가 더 컸고, 신장의 경우, 전국 평균치와 실제치수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상적으로 커지고 싶은 신장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커 보이려는 욕구가 많아 보인다. 특히 젖가슴둘레의 경우, 본 연구대상자의 실제치수 평균이 국민표준체위조사의 평균보다 5.4cm 더 커서 많은 치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이상치수는 국민표준체위조사의 평균보다 남자 대학생은 7.7cm, 여자 대학생은 4.6cm가 크게 나타났다.

체중에 있어서 남자 대학생들은 국민표준체위조사

의 평균치에 비해 훨씬 많은(+4.8kg) 체중이 나가길 원하지만, 여자 대학생들은 국민표준체위조사의 평균치보다 훨씬 작은(-1.9kg) 체중을 원하고 있어 남녀 대학생들 사이에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머리수직길이는 국민표준조사의 평균보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이 더 적게 나타났고, 이상치수는 1.4cm 머리수직길이가 적어지길 원하였다.

6. 요인분석

체형에 대한 설명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와 각 요인 별 내용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에서 고유값 1.0 이상인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에 대한 총 설명력은 78.57%이다.

<Table 5>에 나타나있듯이 실제체형에 대해 요인 1은 허리와 엉덩이부위의 들레와 너비항목, 체중과 같은 항목들이 높게 부하되어 토르소(Torso)의 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고유값은 8.73이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4.72%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신장과 같이 높이를 설명하는 항목들이 높게 부하되어 있고 체형의 높이와 관련된 인자로 고유값은 3.83이며 전

Table 4.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data between Size Korea, real and ideal body shapes

(units: cm, kg)

항 목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04 Size Korea	본 연구 실제치 평균	본 연구 이상치 평균	'04 Size Korea	본 연구 실제치 평균	본 연구 이상치 평균
신 장	173.8	174.0	177.1	160.7	161.9	164.2
목뒤높이	148.0	148.2	150.2	136.7	137.4	139.4
어깨높이	140.3	141.9	143.7	129.7	132.2	133.7
겨드랑높이	129.1	127.7	129.4	120.0	119.6	121.3
동길이	41.9	47.8	49.4	38.1	40.1	40.4
젖가슴둘레	95.1	94.1	96.4	81.9	85.1	86.0
허리둘레	77.7	81.3	80.3	67.1	68.6	66.0
엉덩이둘레	94.6	97.2	97.1	91.2	93.7	90.5
젖가슴두께	21.4	23.2	24.0	20.5	22.4	22.7
허리두께	20.0	20.1	20.0	17.2	17.9	17.1
엉덩이두께	23.8	24.4	23.0	20.8	22.4	21.9
어깨너비	40.2	42.3	44.3	36.1	36.9	35.8
허리너비	26.8	28.3	28.4	27.9	24.5	23.3
엉덩이너비	33.2	33.7	33.3	32.4	33.1	31.9
머리수직길이	23.5	22.4	21.9	22.3	21.8	20.9
머리너비	16.0	16.8	16.5	15.2	15.9	15.3
체 중	69.5	69.8	70.4	53.5	52.8	49.8

자료출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Size Korea. 자료검색일 2007, 8. 2, 자료출처 <http://sizekorea.kats.go.kr>

Table 5. Factor analysis of male students

항 목	실체체형 요인					항 목	이상체형 요인						
	1	2	3	4	5		1	2	3	4	5		
허리둘레	.89	0.0	.27	.10	0.0	토르소 크기	목뒤높이	.94	.12	.13	0.0	0.0	인체 높이
허리너비	.85	.13	.11	0.0	0.0		신 장	.94	.15	0.0	0.0	0.0	
엉덩이둘레	.83	.14	.32	.20	0.0		겨드랑높이	.92	0.0	0.0	0.0	0.0	
엉덩이너비	.77	.24	.17	.24	-.13		어깨높이	.91	.27	0.0	0.0	0.0	
체 중	.74	.36	.45	.20	0.0		옆허리높이	.82	0.0	0.0	.16	0.0	
허리두께	.64	0.0	.43	0.0	0.0		엉덩이높이	.71	.21	0.0	-.15	.12	
젓가슴둘레	.62	.21	.58	.14	0.0		체 중	.55	.54	.10	.23	0.0	
신 장	.19	.95	0.0	0.0	0.0		인체 높이	허리둘레	0.0	.82	.22	.18	
목뒤높이	.14	.94	0.0	.10	.16	겨드랑두께		0.0	.77	0.0	-.20	-.20	
겨드랑높이	.13	.92	0.0	.15	0.0	허리너비		.33	.70	0.0	.21	0.0	
어깨높이	.28	.91	.11	0.0	0.0	엉덩이둘레		.19	.65	0.0	.20	.24	
옆허리높이	0.0	.87	0.0	.13	-.14	젓가슴둘레		.45	.58	0.0	.25	.21	
엉덩이높이	.19	.71	.12	-.15	0.0	등길이		.28	.44	0.0	-.22	.25	
겨드랑두께	.43	0.0	.78	.11	0.0	토르소 측면 형태	엉덩이두께	0.0	0.0	.84	0.0	.25	토르소 측면 형태
젓가슴두께	.45	0.0	.77	.17	0.0		허리두께	0.0	0.0	.81	.12	.29	
엉덩이두께	.19	0.0	.76	-.20	.39		젓가슴두께	0.0	.16	.79	0.0	0.0	
어깨너비	.12	0.0	.59	-.46	.19		머리수직길이	0.0	0.0	.10	.80	0.0	
머리수직길이	.18	.16	0.0	.79	0.0		엉덩이너비	.18	.39	0.0	.53	-.11	어깨 형태
겨드랑너비	.29	0.0	.46	.50	-.16		머리너비	0.0	.31	-.25	.18	-.70	
머리너비	.40	.23	-.22	0.0	-.71		어깨너비	.14	.40	-.11	0.0	.68	
등길이	.40	.24	0.0	0.0	.69		겨드랑너비	.34	.23	0.0	.45	.45	

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4.64%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어깨와 젓가슴두께, 그리고 엉덩이두께 요인으로 고유값은 1.85이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6.08%로 나타났다. 이들 부위는 요인 1의 토르소 크기와 관련된 항목이나 측면형태에 관계되는 항목으로 분리된다. 요인 4는 머리수직길이와 겨드랑너비 항목으로 고유값이 1.09이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6.67%로 나타났다. 요인 5는 머리너비와 등길이이고 고유값은 1.0이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26%로 나타났다. 요인 4와 요인 5는 인체부위 중 서로 다른 요소들로 묶여 있어 체형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필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상체형에 대한 요인은 실제체형에 대한 요인과 다르게 나타났다. 요인 1은 인체의 높이와 관련되어 있고 고유값은 7.19이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6.3%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허리둘레, 젓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및 겨드랑두께와 같은 항목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냈고, 토르소의 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고유값은 2.6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7.5%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엉덩이두께, 허리두께,

젓가슴두께와 같은 항목에 높게 부하되었고 토르소 측면형태와 관련있으며 고유값은 2.07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0.3%이다. 요인 4는 머리수직길이와 엉덩이너비 항목으로 고유값은 1.39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4%이다. 이 요인은 다른 요인들과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형파악을 위한 항목설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요인 5는 어깨너비, 겨드랑너비에 높게 부하되어 어깨형태와 관련된 요인이며 고유값은 1.18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2%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들의 체형을 설명하는 인자는 남자 대학생들의 체형설명 인자와 서로 다르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자 대학생들은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을 설명하는 요인 1이 신장과 같이 높이를 설명하는 항목들이 높게 부하되어 있고 체형의 높이와 관련된 인자로 고유값은 7.09, 5.12이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실제체형이 25.05%, 23.28%로 나타났다. 실제체형의 요인 2는 엉덩이와 허리의 둘레와 너비항목이 높게 부하되었고 고유값은 3.87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1.71%로 나

Table 6. Factor analysis of female students

항 목	실체체형 요인					항 목	이상체형 요인							
	1	2	3	4	5		1	2	3	4	5	6		
신 장	.95	.17	0.0	0.0	0.0	인체 높이	신 장	.92	.11	0.0	0.0	0.0	0.0	인체 높이
목뒤높이	.94	.12	.11	0.0	.14		어깨높이	.89	0.0	0.0	0.0	0.0	0.0	
어깨높이	.91	.17	0.0	0.0	.17		겨드랑높이	.88	0.0	0.0	0.0	0.0	0.0	
겨드랑높이	.89	0.0	0.0	0.0	.15		목뒤높이	.86	0.0	-.10	0.0	0.0	-.21	
옆허리높이	.87	.17	0.0	0.0	-.28		엉덩이높이	.83	-.16	-.14	0.0	.20	.16	
엉덩이높이	.81	.13	-.17	.30	.16		옆허리높이	.72	-.22	-.28	.16	-.12	.33	
엉덩이둘레	.21	.82	.23	0.0	-.11		허리둘레	0.0	.82	0.0	0.0	.35	0.0	
엉덩이너비	0.0	.78	0.0	.15	.16	체중	.30	.74	.23	.12	.15	.18		
허리너비	0.0	.78	0.0	0.0	0.0	머리수직길이	-.10	.61	.19	.18	0.0	.11		
허리둘레	0.0	.77	.37	0.0	0.0	엉덩이둘레	-.16	.60	.54	0.0	.11	0.0		
체 중	.33	.75	.42	.20	0.0	엉덩이너비	-.19	0.0	.80	.17	.27	0.0		
젓가슴둘레	.29	.74	.26	.27	-.15	겨드랑너비	0.0	.30	.80	0.0	0.0	0.0		
겨드랑너비	.26	.71	0.0	0.0	0.0	허리너비	0.0	.16	.57	0.0	.34	.50		
엉덩이두께	0.0	.21	.70	.17	.13	젓가슴두께	.20	0.0	0.0	.87	0.0	.16	토르소 두께	
허리두께	-.17	.43	.64	.17	0.0	엉덩이두께	0.0	.14	0.0	.87	0.0	.21		
머리수직길이	0.0	0.0	.49	0.0	-.31	허리두께	-.25	.41	-.14	.61	.13	-.17		
어깨너비	.20	0.0	.15	.78	.20	어깨 형태	머리너비	-.13	.11	.22	0.0	.75	0.0	어깨 너비
젓가슴두꺼	0.0	.26	.40	.68	0.0		어깨너비	0.0	0.0	.32	-.16	.73	-.17	
머리너비	0.0	0.0	-.57	.67	0.0		겨드랑너비	0.0	.27	0.0	.28	.69	.18	
겨드랑두꺼	.10	.17	.32	.46	-.37		등길이	.25	.15	0.0	.30	0.0	-.69	
등길이	.19	0.0	0.0	.11	.85		젓가슴둘레	.41	.27	.17	.27	0.0	.57	

타났다. 요인 3은 엉덩이두께, 허리두께, 머리수직길이와 같은 항목이며 고유값이 1.66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0.61% 나타났다. 요인 4는 어깨너비, 젓가슴두께, 머리너비, 겨드랑두께항목으로 고유값이 1.52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9.82%이다. 요인 5는 등길이를 고유값이 1.25이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6.12%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들의 이상체형에 대한 인자는 토르소의 크기에 관련된 인자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체형에 대한 인자보다 요인 한 개 더 많아진 6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등길이는 모두 독립적인 인자로 판명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체형에 대한 선호이미지를 인지하고 실제적인 체형과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차이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여 의복제작과 선택, 그리고 체형관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남녀 대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직접계측

에 의한 실제치수와 디지털 사진을 통한 이상적 체형치수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실제체형 위에 그런 이상체형 도식화를 통하여 선호체형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인의 실제체형에서 이상적인 형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위가 남녀간에 서로 다르지만, 실제체형치수와 이상체형치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대학생 모두 기대하는 이상치는 신장이 증가되기를 원하였다.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신장과 젓가슴둘레가 커지기를 원하고 어깨너비가 넓어지길 원하는 반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적어지는 체형을 선호하고 있어 실루엣에 있어서는 T자형의 역삼각형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여기며 또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도 신장은 증가를 원하는 것에 비해 전체적인 너비는 더 좁고 가는 체형을 선호하고 있어 이상체형으로 더욱 더 큰 키를 원한다. 둘레항목과 두께항목에 있어서 적은 치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 최근 젊은 대학생들의 체형에 관한 선호도가 직사각형의 슬림한 체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 대학생은 비만도는 실제치수에 과체중에 속하

나 이상치수는 정상에 속하기를 원한다. 여자 대학생은 비만도가 실제 치수에서는 정상수준이나 이상치수는 저체중의 수준을 원한다.

남자 대학생들의 실제체형을 설명하는 제 1요인이 몸통(Torso)의 크기에 관계되며, 제 2인자는 신장과 같이 높이를 설명하는 항목이었다. 반면, 이상체형을 설명하는 제 1요인은 높이항목들이 해당되어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을 설명하는 인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는 남자 대학생과 달리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을 설명하는 제 1요인이 모두 높이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상체형 실루엣이 한국의 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 대학생은 체형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신 도식화를 위한 실루엣 그리기를 실습한 후 이상체형에 대한 치수를 적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치수가 아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을 외모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있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체형이나 외모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학생들 자기 체형의 외적인 면과 내적 잠재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체형에 대한 단순 수치뿐 아니라 체형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인자들에 대한 지식은 본인이 꿈꾸어온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체형에 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에 대한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등 조사범위를 넓혀서 연구해야 하며, 점차 수명이 길어지고 활동가능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대학생의 범주를 벗어나 제 2의 인생 출발점이라 생각하는 정년 이후에도 신체만족도를 높여 늘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연구대상자 연령의 폭을 넓혀 신체만족도와 이상체형과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김양진.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숙, 이소라, 박수진, 함미혜. (2003). 남녀 대학생의 GBI, 의복선호 및 색선호 사이의 관계 연구. *충남생활과학회지*, 16(1), 29-45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 (2004).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6), 758-766.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이명희. (2003). 청소년의 외모관련행동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01-1111.

임경복. (1997).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2), 195-205.

전용민. (2003). 여자 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재은, 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理想型)에 관한 연구-1992년도와 1997년도의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정재은, 이순원. (1993). 20대 여성의 실제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조윤주, 이정란. (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262-269.

허갑범. (1990). 영양과 관련된 질환의 현황과 대책. *한국영양학회지*, 23(3), 19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서울: 국립기술표준원.

황진숙, 나영주. (1999). 남자 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의 관계연구. *복식*, 49, 65-7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Size Korea*. 자료검색일 2007. 8. 2, 자료출처 <http://sizekorea.kats.go.kr>

Desmond, S. M., Price, J. H., Hallinan, C., & Smith, D. (1989). Black and whi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weight. *Journal of School Health*, 59, 353-358.

Horn, M. J. & Gruel, L. M. (1981). *The second skin*. Boston, MA: Houghton Mifflin.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Mable, H. M., Balance, W., & Galgan. (1986).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907-911.

Moses, M., Banilvy, M. M., & Lijshitz, F. (1989). Fear of obesity among adolescent girls. *Pediatrics*, 83(3), 393.

Rudd N. A. & Lennon S. J. (2001). Body image: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3), 120-133.